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6.30.(토) ~ 2018.7.27(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위치는 수빅 산 속에 있었고, 규모는 5층 건물에 시설은 최신식은 아니였지만 지내기에는 충분함. 분위기는 평범했음.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우선 첫날에 입학테스트로 분반을 하여, 그룹수업은 모두 같이 진행하였고. 수업 내용으로는 단어, 문법, 토익스피킹, 이슈, 읽기, 등등 대부분이 스피킹 위주로 진행하였음, 1:1 수업 경우는 선생님들과 둘이서 진행하였고. 단점으로는 1:1 교실이 너무 비좁았음. 과제로는 기본적인 예습과 복습, 추가적으로 단어 외우는 것들이 있었고, 수업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맞춰서 진행해줌.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우선 금요일 마다 fun Friday를 진행하였음. 내용으로는 핑크색 옷 입기, 옷긴 양말 신기, 신호등 색 옷 입기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이었음. 이에 추가비용은 각양각색이지만 다소 소비하였을 것으로 보여 짐. 본인을 포함하여 친구들 모두 다 현지에서 구매함. 첫날 수박 투어를 진행하여 주변 관광을 하였고, 리조트 관광도 하였음. 마닐라투어는 본인의 몸 상태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였고, 요트체험은 현지 태풍으로 인해 취소되었음. 마지막 바비큐 파티는 약400페소 정도 씩 모은 후 진행함.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거의 항상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과 샌들, 슬리퍼는 필수임.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어느 장소를 가던 가드들이 지키고 있어 상당히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음, 저녁쯤이 되면 군인들도 순찰하기 때문에 치안 걱정은 없음. 다만 구걸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은 조심해야할 필요가 느껴짐.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만족스러웠음, 통금과 점호는 단체생활이니 당연한 것이고 숙소 내에 별레가 상당히 많았지만 가드분을 부르면 바로 처리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했음. 숙소 내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음. 다들 만족해함.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아침은 입맛에 맞지 않았지만 점심과 저녁은 괜찮았음. 가끔씩 컵라면을 먹기도 함.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주로 택시와 FB를 이용하였으며 택시를 이용할 때에는 흥정이 정말 중요함. 운전기사들은 대부분 친절함.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7,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용돈	450,000	직접 환전
합계	1,177,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물같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비상약을 꼭 챙겨오는 것을 추천함. 정말 힘들.

물은 무조건 사먹는 것이 좋으며, 기숙사 정수기는 괜찮음. 우산과 우비는 꼭 챙겨오는 것이 좋으며 샌들과 슬리퍼를 준비해오는 것을 추천함.

여행 경비로는 30만원은 정말 부족하며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 됨.생각보다 돈 쓸 일이 많아 생각보다 금방 사용함.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이번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것은 꼭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여하지 못했더라면 정말 아쉬웠을 것 같다. 29명의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필리핀 현지에서도 만난 새로운 인연들이 쉽게 잊혀지지 않을것같다. 첫째주는 정신없이 바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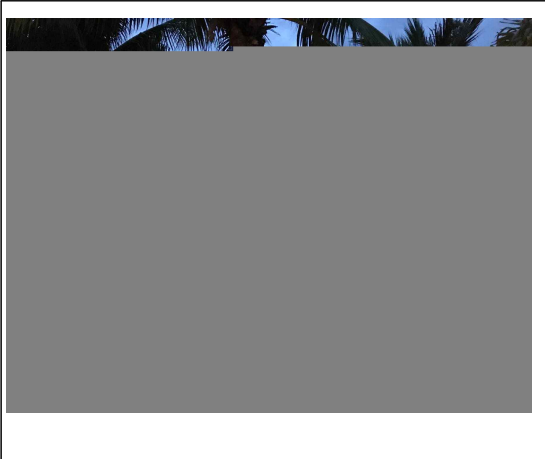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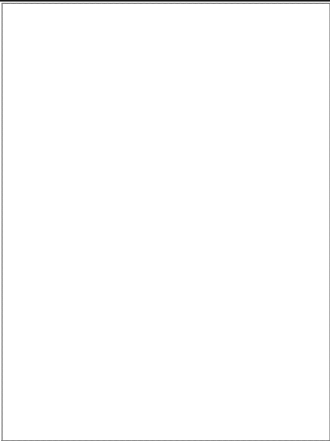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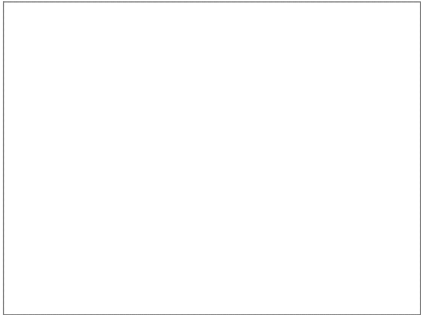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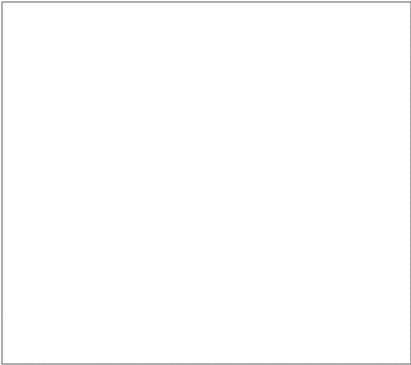
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과 친해지고 환경에도 적응해가며 상당히 재밌음. 또 수업의 대부분이 스피킹이라는 것이 정말 만족스러웠음. 일반적으로 외국인과의 영어로 대화하기가 꺼려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벽을 조금 허문것 같아서 좋았다. 선생님들이 대화 수준을 알아서 맞춰주고 이해해 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수업에 참여하였던 거 같다.

액티비티는 상당히 흥미로웠다, 수빅 투어, 안바야 리조트, 요트체험을 못한게 정말 아쉽다.

결론으로는 영어를 배우러갔지만 사람들을 더 많이 배우고온 값진 경험이 되었다. 그렇다고 영어를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수업이 하루8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4-5 교시만 있었더라면 노는것에만 집중하였을거같은데 8교시라는 긴 시간동안 계속 영어만 쓰다보니 한국에 와서도 땡큐, 굿 이런 말들을 계속하게된다.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SLC와 우리 학교에 감사한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	--	--

	
Subic bay	Anvaya cove
	
Fun friday	Group 5
	
Man's	certificate of award